

## 문체부 소속·공공기관·유산청 대상 업무보고 마무리

- 1. 16. 오전·오후에 걸쳐 15개 소속기관과 국가유산청·국가유산진흥원 업무보고 실시
- 최휘영 장관, 관행적인 보고에서 탈피해 치열하게 토론하고 국민에게 정책 변화 과정을 모두 공개한 자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1월 16일(금) 오전 10시부터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국립민속박물관, 국가유산청 등 17개 기관을 대상으로 3, 4차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이로써 지난 1월 13일부터 이어진 59개 소속·공공기관에 대한 신년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다.

오전에 진행한 3차 업무보고에서는 예술, 지역·소통 등 2개 분과로 나뉘어 각 기관의 혁신안과 국민 체감형 성과 창출 방안을 집중 점검했다.

첫 번째 분과(세션) ‘예술’ 분과에는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국악중·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중·고등학교, 국립중앙극장, 국립국악원, 대한민국예술원 사무국 등 6개 기관이 참여했다.

최휘영 장관은 ▲한국예술종합학교에 현재 지역의 반응이 좋은 영재 유스캠프를 확대해나갈 것을 주문하고, ▲국립국악중고등학교에는 학생들이 재학 중 여러 직업을 체험해 졸업 후 연주가 이외에도 예술경영자 등 다양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이어 ▲국립전통예술중·고등학교에는 최근 불거진 각종 비리 및 보조금 논란과 관련, 감사 결과를 기다리기보다 자체적으로 고강도 혁신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국립중앙극장에는 철저한 시설 관리와 안전사고 책임 소재 명확화를 지시했다. ▲국립국악원에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로 국악의 세계화 기회가 열렸으며, 외국인들이 국악을 많이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대한민국예술원 사무국에는 신입 회원 선출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해 줄 것을 강조했다.

두 번째 분과(세션) ‘지역·소통’ 분과에는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 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한글박물관, 국립장애인도서관, 국립정책방송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최 장관은 ▲국립국어원에 인공지능(AI) 시대에 대비해 한국어어 문화 지식자원인 ‘말뭉치’의 확대 구축 가속화를 요구하고, ▲국립민속박물관에는 외국인 관람객 편의 개선을 강조했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는 디지털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존·수집할 방안을 문체부와 함께 마련할 것을 주문하고, ▲국립한글박물관에는 작년에 발생한 화재의 복구와 증축 현황을 점검하며 재개관까지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국립장애인도서관은 독립 청사 건립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문체부와 함께 철저히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 최 장관은 ▲한국정책방송원(KTV)에 유튜브 등 디지털 플랫폼 중심으로 전환해 국민과의 접점을 넓힐 것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는 지역 주민에게 더 열린 운영으로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의 발전에 기여하는 모범 사례가 되어주기를 당부했다.

오후에 진행된 4차 업무보고에서는 국가유산청과 국가유산진흥원이 2026년 중점 추진 과제와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 후속 조치 사항 등을 보고했다. 최휘영 장관은 종묘의 세계유산 가치 보존과 반구천 암각화 관리 등 주요 현안을 보고받는 한편, 산불 등 재난으로부터 국가유산을 철저히 보호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예방과 신속한 초동 대응 체계 가동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어 올해 7월로 예정된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우리 유산의 세계적 확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국가유산 고유의 가치를 담은 문화상품 개발 등을 통해 ‘케이-컬처’의 위상을 높이는 데 양 기관이 유기적으로 협업해 갈 것을 강조했다.

문체부는 3·4차 업무보고 주요 내용을 1월 17일부터 문체부와 각 기관 누리집,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며, 회의 영상은 추후 문체부 유튜브에서 볼 수 있다.

최휘영 장관은 “이번 업무보고는 관행적인 보고에서 탈피해, 예민한 문제도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국민에게 정책 변화 과정을 모두 공개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라며, “문화강국으로의 대도약을 위한 변화와 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길 바란다. 6개월 후 재점검 자리에서는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더욱 분명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따로 붙임 현장 사진

담당 부서	문화예술정책실 문화기반과	책임자	과장 이관표 (044-203-2641)
		담당자	사무관 최준규 (044-203-2649)

